素問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 해석과 운용방법 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ree-yin-three-yang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in Hwangjenegyeng Somun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haany University

The adapted scope of the Opening-covering-axis of Three-yin-three-yang can summary two parts. the first, former treatise of Gyeng-Lak emphasized the line structure by point and line but now we can understand expansible structure as not only line but also space of structure by the space structure of six-meeting. So the application of Gyeng-Lak can be various by extensive analysis of the Hand-three-yin-three-yang in Sky(Yang) including the Foot-three-yin-three-yang in Ground (Yin), even if the original text has limited examples. The second, former additional explanations of Hwangjenegyeng Sanghanlon by doctors can be profoundly analysis about the pathology and cure process of Three-yin-three-yang of human body. It has base on the metaphorically symbolized theory of Three-yin-three-yang. This is the Saeng-jang-shu-chang of So-yin, Tae-yang, Yang-myeng, So-yang. Tae-yin, Guel-yin in order. Also the circulation of Opening -covering-axis of Three-yin-three-yang has order in Tae-yang (Opening), Yang-myeng (Covering), So-yang (Axis), Tae-yin (Opening), Guel-yin (Covering), So-yin(Axis).

Key words : Somum reatise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three- yin-three-yang

서 론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1](이하 '陰陽離合論'이라 한다)은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락 또는 상한론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陰陽離合論'에는 한의학의 많은 기본개념들이 언급되어 있고 문장구조나 사용된 文字들의 특성을 볼 때 이론의 成立時期가 內經 중 비교적 앞선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五運六氣論에 근거한 相生相剋 標本中氣論등과 구별되는 開闔樞 개념의 특이성과 傷寒論과의 關聯性등의 여러 문제제기들로 인해서 그리고 韓醫學의 理論體系가 五運 中心的 體系와 六氣 中心的 體系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五運 中心的 體系가 韓醫學 理論의 主導權을 장악함으로 인해 五運 中心的 體系는 그 이론이 深化發展된데 비해 六氣 中心的 體系는 그 이론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바[2] 六氣 中心的 體系를 운용하는데 있어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가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됨으로 인해 그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이러한 '陰陽離合論'은 陰陽이 空間的으로는 天地로 分化하고 時間的으로는 日月로 分化하여 이것이 사람을 덮고 실어서 사람의 生長收藏을 돕는다고 하는 陰陽과 人間의 相應하는 理致를 제시하면서 三陰과 三陽은 이러한 陰陽의 원리처럼 三陰三陽이 인간에 적응되는 원리를 알 수 없는데 이를 해명하는데 이론의 중심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陰陽의 개념과 陰陽의 分化原理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체의 生長 變化를 陰陽과 三陰三陽의 원리에 의해 해석할 때 분명해지리라 볼 수 있다.[3] 그러나 '陰陽離合論'을 理解하고 解釋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는 陰陽論의 語源과 起原, 三陰三

* 교신저자 : 김광중,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7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38
· 접수 : 2003/08/05 · 수정 : 2003/09/01 · 채택 : 2003/11/01

1) 原文을 王氷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pp. 73-8로 한다.
2) 김광중,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중사, 1996), p. 47.
3) 本文 原文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人亦應之 今 三陰三陽 不應陰陽"

陽의 설정에 대해 윤창열의 논문, 三陰三陽의 陰陽屬性과 開闔樞理論 및 氣血多少에 대해 <<黃帝內經太素>> <陰陽合篇>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용범의 논문, 三陰三陽을 陰陽의 運動으로 보고 陰陽運動으로서 三陰三陽의 開闔樞運動을 論한 박찬국의 논문, 陰陽離合論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琴坍樹의 논문, 편제상의 기반으로 한 三陰三陽에 대한 연구의 玉到勳의 논문, 마지막으로 林鎭錫은 三陰三陽의 개념설정에 대한 논문 등이 있었으나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기준속에서 三陰三陽의 설정과 운용에 대해 분명히 정리된 바가 없어 '陰陽離合論'을 理解하고 解釋하는데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素問 陰陽離合論 陰陽離合의 이론적 운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陰陽離合의 思想的 背景과 論理 構造 및 論理 形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三陰三陽에 대한 해석과 運用方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三陰三陽의 설정

1) 六合構造에 의한 三陰三陽의 意味

天地陰陽의 分化 象인 廣明과 太衝, 四象分化의 의미를 지닌 太, 少 陰陽이 성립하고 陽明 厥陰의 의미가 추가됨으로서 三陰과 三陽의 離合은 보다 분명한 구조형식을 가지게 된다. 六合構造에 의한 陰陽의 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生命의 誕生- 少陰과 太陽

<繫辭傳>에 "위대 하도다 乾元이여 만물이 乾元을 바탕으로 비로소 生成되기 시작하고 지극 하도다 坤元이여 만물이 이를 바탕으로 生成되니"[4] 하였다.

생명의 탄생은 陰處로부터 地上으로의 出의 始點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出之者는 生命體이다. 생명체의 出地하는 과정에 少陰과 太陽이 관여한다. 太衝(생명체를 담는 그릇)의 地인 少陰 의 上에는 太陽이 있어 이들 陰陽이 交感하여 생명체의 순환 변화(生長收藏의 生命活動)가 시작되는 것이다. 萬物의 기원에 대해 <<彖傳>>에서는 "'天地가 交感하여 萬物이 化育 生長한다' '天地가 서로 만나 온갖 사물의 발전이 모두 밝게 드러난다' '天地가 交合하여 만물을 기르는 道가 通한다' '하늘이 풀리고 이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때 白果 초목이 모두 싹을 틔운다' '天地가 交合하지 않으면 만물을 기르는 道가 通하지 못한다'"[5]고 하였다. 결국 人間 生命은 少陰과 太陽이 交感하여 인체의 化育 生長의 싹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少陰之上 名曰 太陽'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이다.

(2) 會合[6]하고 變通[7]하는 원리- 太陰과 陽明

生命體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운동과정을 <<彖傳, 恒卦>>에는 "해와 달은 天道의 운행법칙을 따라 영원히 천하를 비추고 사계절의 변화로 영원히 만물을 化生 변화시킬 수 있다. 聖人이 바로 그 이치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천하가 교화되고 아름다운 풍속이 형성된다"[8]고 하였고 <繫辭傳>은 "聖人이 천지에 나타나는 사계절의 변화를 본뜨고 하늘에 걸려있는 日月星辰의 표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 聖人이 천하만물의 끊임없는 운동을 보고 그 운동과정에 나타나는 會合하고 變通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 사물변동의 길흉을 판단하였다"[9]고 하였으며 "해와 달이 운행하여 한번 춥고 한번 덥다"[10]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며 봄은 陽이고 가을은 陰이며 여름은 陽이고 겨울은 陰이다(<<黃帝四經>> <十六經>)"[11] "봄, 여름이 앞에 있고 가을, 겨울이 뒤에 있다(<十六經. 觀>)"[12]고 하였다. 인체에 있어 日月은 廣明과 太衝이다. 하지만 빛(光)과 관계되는 것은 廣明이므로 廣明이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太陰과 陽明은 廣明之下 太陰을 중심으로 太陰之前 名曰 陽明이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太陰과 陽明의 역할은 해와 달이 천하를 비추어 만물을 化生 변화시키듯이 인체를 계절변화에 따른 춥고 더움에 조화롭게 應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생명 활동에서 나타나는 會合하고 變通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상징이 '太陰之前 陽明'이다. 또한 한가지 유의할 것은 少陰과 太陽은 天地의 관계이므로 '天은 높고 地는 낮다'는 원리가 적용되어 쉽게 少陰과 太陽의 上下關係가 성립하지만 日月은 前後關係가 아니다는 점이다. 日月이 前後關係를 가지는 것은 日月 陰陽이 四時로 분화하여 四時의 順序가 발생하고 四時가 各各의 陰陽을 가질 때 (봄과 여름이 앞, 가을과 겨울이 뒤)에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前後關係의 표현에는 공간적인 의미의 '往來不窮'하는 出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先後라는 時間的인 觀念[13]이 내포되는 것이며 日月陰陽의 인체 상응의 개념인 廣明과 太衝의 前後關係(前曰廣明 後曰太衝)도 四時陰陽의 先後관계에 의해 규정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動과 靜- 少陽과 厥陰

少陽과 厥陰은 겉과 속이라는 空間的인 槪念으로 표현된 關係 짝이다. '陰陽離合論'에서 少陽과 厥陰의 짝은 다른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少陽의 特性이 太陽과 陽明이 陰中之陽인데 少陽은 陰中之 少陽이요 厥陰의 특성이 太陰이 陰中之陰이요 少陰은 陰中之少陰인데 厥陰은 陰之絶陰 陰之絶陽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있다. 天地, 日月의 陰陽이 서로 교감하여 만물을 낳고 덮고 실어 회합하고 변통하는 과정에는 움직임이 있고 고요함이 있다. 莊子는 <天道>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멈추어 있는 것은 땅이다"[14]고 하여 天動地靜說을 論하였는

4) 朱伯崑 외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서울; 예문서원, 2001), p. 10
5)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p. 20.
6) <繫辭傳, 上> 제8장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會合'이란 '움직임에는 서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있다'의 의미다)"(김석진,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p. 167). p. 73).
7) <繫辭傳, 上> 제12장 "化而裁之 謂之變 推而行之 謂之通" (김석진, 전게서, p. 167).
8) "日月得天 天而能久照 四時變化而 能久成 聖人久其道而 天下化成"(성백효 譯註, 周易傳義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p. 29).
9) <繫辭傳, 上> 제11장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김석진, 전게서, p. 144), <繫辭傳, 上> 제8장 "聖人 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김석진, 전게서, p. 72), <繫辭傳, 上> 11장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 繫辭焉 所以告也 定之以吉凶 所以斷也 (김석진 전게서, pp. 155-157).
10) <繫辭傳, 上> 제1장 "日月運行 一寒一暑"(김석진, 전게서, p. 21).
11)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78.
12)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42.
13) <繫辭傳, 上> 제11장 "變通 莫大乎四時"(김석진, 전게서, p. 153).
14) <外篇, 天道> 第 十四, "其動也天 其靜也地"(莊子 著, 안동림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p. 348).

데 戰國時代에 이르면 이러한 사상은 발전하여 "<<黃帝四經>> <十六經. 果童>에 '땅은 고요함으로 德을 기르고 하늘은 움직임으로 이름을 바로잡는다' 이것은 '靜作相養'함을 이르는데 바로 靜과 動이 서로 기른다는 의미"[15]로 된다.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陽의 운동은 陽明으로 표현되는 陽進의 원리를 가지는데 이는 天動의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太陰으로부터 시작된 陰의 운동은 厥陰으로 표현되는 陰退의 원리를 가지는데 이는 地靜의 의미로 유추될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陽은 陽進의 활발한 陽 運動이 極限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되고 厥陰은 陰退의 지난한 陰 運動이 極限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된다. 결국 少陽은 활발한 陽 運動의 결과 氣가 흩어져서(散) 陽이 적어짐으로 四方에 위치하게되고 厥陰은 지난한 陰 運動의 결과 氣가 모이게(凝聚)되어 운동성이 적어지고(絶陽) 자신이 처한 경계도 좁아지게(絶陰) 되는 것이다.

2) 六合構造에 의한 三陰三陽의 象徵解釋

三陰三陽의 形成은 天地 日月 四時의 陰陽 變化 循環이 인간에게 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三陰三陽의 독특한 구조형식(三陰三陽을 서로 짝을 지워 의미를 부여하는)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陰陽離合論'에 대한 여러 연구 문헌들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저자도 본문 6)절의 의미를 담아 三陰三陽의 象徵들을 比喩하여 解釋하고자 한다. <<易傳>>에는 卦辭를 풀이함에 있어 나무에 비유한 例가 많다. 나무는 그 뿌리가 地에 있고 하늘을 떠받치는 형상을 가지며 日月 四時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生長收藏의 수행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三陰三陽을 나무에 비유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厥陰은 씨앗에 비유될 수 있다. 먼저 厥陰의 厥 字는 "屮厂(굴 바위 엄)과 屮(逆의 古 字)와 屮欠(기지개할 흠)의 상을 취하고 있으니 즉 물이 逆出 하려고 하지만 굴 바위와 같이 응고가 심한 곳에 있어서 그 힘이 不及함으로 生할 수 없는 것을 厥이라 한다"[16]는 象을 가지는데 이러한 모습은 씨앗을 볼 때 그 속에 胚芽가 있고 껍질로 둘러 싸여 있는 모습과 그 象이 유사하다. 다음으로 씨앗은 용적이 작고(絶陰) 운동성이 없어 보여 靜的이며(絶陽) 딱딱하다(凝聚) 여기에 地氣가 가해지면 운동이 始作되어 움직임이 일어나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온다. 이때 싹은 아직 땅속에 있으며(未出地) 이러한 地氣의 作用과 싹(苗)을 少陰이라 한다. 싹이 자라면 땅(地)을 뚫고 地上으로 나아가게(出之) 되는데 이때부터 싹은 天氣의 작용을 받기 始作한다. 싹에게 작용하는 天氣가 太陽이다. 太陽은 地氣와 交感하여 苗木이 되도록(生)자라게 하여 가지를 가지고 잎을 무성하게(長) 한다. 이때의 天氣의 作用을 陽明이라 부른다. 天氣의 작용이 至極함에 이르면 陽의 활발한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가지가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잎의 활동이 적어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이를 少陽이라 한다. 이때부터 地氣의 작용이 强하게 되어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딱딱해지며 열매를 맺게(收) 되는데 이 열매는 무성한 가지에 가려져 있고(廣明之下) 잎은 떨어지기 시작(收)한다. 이러한 작용이 太陰이다. 열매 속에는 씨앗이 품어져 있고(藏) 이 씨앗은 厥陰이다. 이 씨앗이 다시 少陰의 작용으로 始生하여 循環하는 끝없는 反復이 계속되는 것이다.

2. 三陰三陽의 형성이론

1) 三陰三陽의 相成

相成은 '서로 이룸'이다. 陰陽은 相成함으로서 하나의 道를 이룬다. 그러므로 三陰三陽도 相成하여야 一陰一陽이 그 循環反復의 運動을 恒常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三陰三陽의 相成은 먼저 '上下 前後 表裏'의 각각의 陰陽의 짝들이 서로 相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三陽經의 開闔樞와 三陰經의 開闔樞가 一陽 一陰이 되어 서로 相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陰陽相成으로 萬物이 '生長收藏' 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도 '生長收藏'할 수 있게 된다.

(1) 積傳爲 一周

三陰三陽이 陰陽相成함으로 三陽(經)과 三陰(經)은 相成하여 一周를 이룬다. 이것이 '積傳爲 一周'이다. '쌓이면 傳한다'는 것은 變化하고 循環함을 이른다. 순환에 대해 "老子는 循環 運動을 '道'가 運動하는 根本形態로 看做한다. <<老子>> 제40장에서 '순환하는 것이 道의 운동이다'고 하였고..... 變化에 대해 '사물이 極에 이르면 반드시 그 對立 面을 향해 발전한다'는 原理에 입각하고 있다"[17]고 하였다. 이것이 "<彖傳>에 이르면 '天行'(즉 자연현상의 변화와 그 법칙)이라는 이론을 세운다. ..... 天行의 법칙은 1.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天行이다[18] 2. '소멸과 생장이 교체되고 꽉 찼다가는 텅 비는 것이 天行이다'(<剝卦, 彖>, '消息盈虛, 天行也') 3. '反復하는 것에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7일이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天行이다. ..... 반복의 이치가 天地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復卦, 彖>, '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 復, 其見天地之心乎')"[19]는 철학사상으로 발전한다. '一周'란 '周行'[20]이 '한번 이루어짐'을 이른다. '積'의 의미는 "陽이 쌓이면 熱氣가 火를 生하고..... 陰이 쌓이면 寒氣가 水가 된다(積陽之熱氣生火..... 積陰之寒氣生水)"[21]에서처럼 무엇이던지 쌓이면 변화가 일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의 "陰陽雩重雩重 積傳爲 一周"라는 문장은 '陰陽이 서로 往來를 거듭(反復, 相成)하여 이것이 쌓이면 서로 轉移하여 一周를 이룬다'는 것이다. 결국 三陰(經)과 三陽(經)은 週期的으로 순환반복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순환 반복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陰(經)과 三陽(經)의 六合의 짝(上下-少陰 太陽, 前後-太陰 陽明, 表裏-厥陰 少陽)에 의한 一周는 '少陰-太陽-陽明-少陽-太陰-厥陰'의 順으로 一周하여 만물의 '生長收藏'의 활동을 영위한다. 결국 天地 日月 四時의 陰陽은 순환변화의 운동(生長收藏)을 반복함으로서 '生生之'(낳고 낳음)의 '道'(易)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다.

1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68.
16) 윤창열, 三陰三陽 硏究, 전게서, p. 341.
17)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4.
18) 〈彖辭傳, 蠱卦〉"먼저 甲日 前 三日의 일을 생각하고 나중에 甲日 後 삼일의 조치를 생각한다(先甲三日, 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也)"(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3).
19)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52.
20) "제25장, 周行而 不殆"-왕필 저, 임채우 옮김, 전게서, p. 115.
21)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게서. p. 50.

둘째, 三陰(經)과 三陽(經)의 開闔樞에 의한 陰陽의 짝은 '먼저 三陽經이 太陽(開)-陽明(闔)-少陽(樞)으로 循環하고 다음으로 三陰經이 太陰(開)-厥陰(闔)-少陰(樞)'으로 循環한다. 三陽(經)과 三陰(經)이 '相成'하면 '太陽(開)-陽明(闔)-少陽(樞)-太陰(開)-厥陰(闔)-少陰(樞)'의 '一周'를 完成하게 된다. 이 一周가 三陰三陽의 離合이 人體에 應하는 常(恒常된 法則)이 된다.

(2) 氣裏形表

"<繫辭傳>은 '形而上의 것을 道라 하고 形而下의 것을 器'라 한다. 이것은 "老子의 '질박한 상태의 것(道)이 分散되어 器(萬物)가 된다'고 하는 도기관념에서 유래한다"[22]고 하였고 "<<易>>에는 一陰一陽은 形器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래서 道라 한다. 乾坤이 열을 지어 내려오니 모두 易의 器이다. ..... 形而下者는 形體가 있다. 그래서 形而下者를 器라고 한다"[23]고 하였고 "<<莊子>> <天地>에 '元氣의 運動이 잠시 멈춰서 萬物을 낳고 事物이 形成되면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形'이라 한다"[24]고 하였다. '陰陽離合論'에서의 '氣와 形'[25]은 天地 陰陽이 交感하여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이치가 三陰三陽의 生長收藏함의 이치(道-形而上)로 應할 때 인간(器-形而下)은 '天陽의 氣와 地陰의 形'으로 되어 人間의 生長收藏(天地 日月 四時의 陰陽과 三陰 三陽)은 氣(陽)와 形(陰)의 陰陽運動으로 그 의미가 함축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天陽은 上에 있고 地陰은 下에 있어 上은 外가 되고 下는 內가 되어 人體라는 器(形과 運動)에서는 表가 되고 裏가 된다. 결국 天陽의 氣는 下降하고 地陰의 氣는 上昇하므로 氣는 裏를 향하여 積傳하고 形은 表를 향하여 積傳하는 것이다.

2) 陰陽 相成

인간의 生長收藏은 氣離形表의 循環이 正常的으로 영위(相成)되는 것이다. 이것이 原文 '氣離形表而 相成也'의 意味이다. 하지만 相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天地日月의 陰陽과 四時의 生長收藏함이 모두 陰陽活動으로서 相成하여 만물을 生成 化育하고 循環 變化를 反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三陰(經)과 三陽(經)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각각의 짝이 相成하여 三陽(經)과 三陰(經)의 순환 변화에 있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셋째, 三陰三陽이 相成하고(三陰三陽의 合) 陰陽이 相成하는(陰陽合)것은 결국 이것이 온전한 하나(其要一也)를 이룸(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相成也'는 '三陰三陽의 離合'과 '陰陽의 離合'이 완성됨을 표현한 結句이다.

3. 三陰三陽의 형성관계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離合을 開闔樞의 의미와 연계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開闔樞 關係는 三陰三陽의 離하고 合하는 變化의 常(恒常된 法則)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變化의 의미에 대해 老子는 有와 無는 같은 根源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며 함께 이름하면 玄妙하다고 한다. "玄妙하고 또 玄妙하다. 온갖 玄妙함의 門이로다"[26]고 하였고 <繫辭傳>은 運動變化의 原因을 "剛柔相推而 生變化"[27]라하여 '굳센 기운과 부드러운 기운이 서로 밀어내면서 변화를 發生시킨다'[28]고 하였고 "化而載之 謂之變"[29]이라 하여 '陰陽이 交感하여 萬物을 化育하되 질서에 맞는 것을 變化라 한다'고 하였으며 "變化者, 進退之象也"[30] "一闔一闢謂之變"[31]이라 하여 사물의 변화를 '닫혔다가 열리고 또 나아갔다 물러남의 거듭된 과정'이라 여겼는데 이는 老子의 발전관(사물이 對立面으로 전화한다고 인식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있으며 그 변화 과정에서 '常'을 찾는 관점)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黃帝四經>>에는 '人制取予'라 하여 '사람은 주고받음을 조절한다'"[32]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陰陽 離合的 인식이 三陰三陽에 적용된 것이 三陰三陽의 離合理論으로 볼 수 있다.

1) 三陽의 離와 開闔樞

三陽의 離合은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의 變化 循環過程이다. 그러므로 三陽의 離合은 三陽經의 원리로 運用되고 三陽經의 常(恒常된 法則)은 合一되어 一陽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三陽의 離合 原理로서 三陽의 開闔樞 原理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開闔樞'란 '闔闢' '進退'의 循環 變化 原理가 응용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먼저 闔闢에 대해 알아보면 闔闢은 그 문자적 의미가 "闔이란 '덮다'의 뜻으로 내부를 덮어 가리는 '문짝'의 뜻을 나타내고"[33] "闢이란 '옆으로 비끼다'의 뜻으로 門을 '양옆으로 밀어 붙여서 열다'의 뜻을 나타냄"[34]이라 한다. 이것이 <繫辭傳>에서는 變化의 道를 상징하는 의미로 인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進退'란 戰爭에서의 '時'를 조절하는 의미로 쓰인다. "'때에 맞게' 즉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알고 맞추어 행동하면 화가 없다는 것'"[35]이다. 이러한 '闔闢' '進退'의 원리가 三陰三陽의 원리로 확대되면 '開闔樞'는 '闔闢'의 공간적인 개념과 '進退'의 시간적인 개념이 融合되어 三陰三陽의 순환 반복하는 변화의 원리(常)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陽의 開闔樞는 첫째, 太陽은 開가 된다. '開'의 文字的 의미는 "開란 '門에 양손을 대어서 열다'의 뜻으로 '빗장'과 '양손'의 會意字"이다. 철학적 의미로는 '原始反終'하는 '開始'의 의미를 가진다. 즉 始生함이다. 그

22)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127.
23)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著,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p. 498.
24) (1)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46.
(2) 〈外篇, 天地〉 第 十二, "留動而生物 物成生理 謂之形"(莊子 著, 안동림 譯註, 전게서, p. 321).
25) 이를 後代(宋代)의 朱熹는 周易本義에서 "天地者 陰陽形氣之 實體(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한 陽과 한 陰이 그 形과 氣가 되어서 하나의 實體를 이룬 것)"(김석진, 전게서, p. 17)이라 했다.
26) "玄之又玄, 衆妙之門"(王弼저, 임채우 옮김, 老子 (서울; 예문서원 2000), p. 51).
27) 〈繫辭傳, 上〉 제2장(김석진, 전게서, p. 31).
28) 老子는 玄牝之門을 이야기하면서 剛柔의 관계에서 柔를 중시하였지만 黃老道家는 剛과 柔를 똑같이 취급하였다.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73).
29) 〈繫辭傳, 上〉 제12장(김석진 전게서, p. 167).
30) 〈繫辭傳, 上〉 제2장(김석진, 전게서, p. 33).
31) 〈繫辭傳, 上〉 제11장(김석진, 전게서, p. 144).
32)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79.
33)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2000), p. 2171.
34) 민중서림편집국, 전게서, p. 2174.
3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43.

러므로 開는 '빗장을 걷어 문을 열어서 변화를 시작함'이 된다. 太陽이란 三陽의 하나이다. 三陽은 陰陽이 '剛柔相推'를 통해 '서로 밀어내면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剛'의 原理이다. 또한 陽明의 名의 의미로부터 陽進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三陽이 人에 應하면 '인간은 주고받음을 조절'하는데 陽은 '陽予之正'하므로 三陽은 正을 '주는' 役割을 가지며 三陰三陽이 '上下 前後 表裏'의 陰陽의 짝으로 '位'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각기 분담(三陽離)하고 있으므로 太陽은 少陰과 짝이 되어 上下 陰陽의 役割 즉 '하늘의 氣運은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氣運은 하늘로 올라가는'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원리와 역할을 太陽爲開란 하는 것이다. 결국 太陽爲開란 太陽이 人體에 正(氣)을 주어(생명을 부여함) 三陽의 循環 變化 運動을 열어 시작함을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隨나라 사람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開를 關이라 표현된 원문을 제시하였는데 關은 文字 的인 의미가 "'만나다'의 뜻, '문짝을 맞추어 닫다'는 의미, 문 빗장때기"[36]로서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津液及於毛孔 故謂關也"[37]라 하였다. 이로부터 최근의 일부 연구가들은 楊上善의 注가 王氷보다 앞선다고 하여 '太陽爲開'를 '太陽爲關'의 誤寫로 보아 '關'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첫째 楊上善의 注는 十二經脈이 臟腑와 結合한 이후의 注로서 "經絡體系는 十二經脈이 먼저 成立하고 나중에 臟腑와 결합되었다"[38]는 점과 臟腑는 주로 五行과 結付시킨다는 점에서 볼때 '陰陽離合論'에 臟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양상선의 原文表現이 꼭 黃帝內經 成書時期의 原文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循環 反復 變化의 常(生理)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失常(病理)에 대해서는 大綱의 원칙만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三陰三陽은 陰陽의 離合 原理로부터 나온 것인데 關이 되면 '關闔'의 의미가 '빗장을 걸어 닫고, 문짝을 맞추어 닫는다'로 되어 음양의 '闔闢'하는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開'를 올바른 표현으로 보고 '開闔樞'의 쓰임과 의미를 추론할 것이다.

둘째, 陽明은 闔이 된다. 闔이란 '내부를 덮어 가리는 形象'을 가지므로 太陽으로부터 주어진 正(氣)을 받아들임을 의미하고 그 '位'는 '太陰之前 陽明'으로 되는데 太陰은 身의 중심에 있고 陽明은 太陰의 前에 있어 陽明은 太陰과 짝이 되어 前後 陰陽의 역할을 가진다. 前後는 시간적인 先後關係가 空間的으로 표현된 것으로 '日月의 陰陽이 하늘에서 晝夜로 光을 비추어 만물을 化育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원리와 역할을 陽明爲闔이라 하는 것이다. 결국 陽明爲闔이란 太陽의 上昇之氣로 개시된 生命體(人)를 日(태양)의 빛(正)으로 化育 繁盛시키는 役割(쓰임)을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셋째, 少陽은 樞가 된다. 樞의 文字的 의미는 "樞란 여닫이문을 원활히 개폐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안된 축(軸)의 부분의 뜻"[39]이다. 陰陽은 對立物이면서 相互轉換하는데 '陰陽이 나아가면 물러남이 있다' '쌓이면(積則) 變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 陽明의 역할이 旺盛해지면(陽進)그것이 쌓여(陽이 至極함) 變化가 일어나는데(陽이 줄어들고 陰이 始生함) 이를 樞라 한다. 少陽은 陽이 줄어든 모습(陽少)을 가져 名을 少陽이라 하며 厥陰과 짝이 되어 表裏陰陽의 역할을 가진다. 少陽과 厥陰은 左右陰陽의 관계이지만 少陽이 兩 側面이 되고 厥陰은 太陰이 身의 中이 되고, 少陰의 前이 되어 '陽在外 陰在內'하므로 裡가 되어 少陽은 厥陰의 짝이 되어 表로서의 공간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闔闢'과 '進退'에는 時가 있어 때에 맞게 조절함이 있다. 그러므로 少陽은 三陰의 表에 있고 陽의 時로부터 陰의 時로의 調節하는 役割을 가진다. 결국 少陽爲樞란 少陽이 太陽 陽明의 陽 運動이 至極하여 그 역할을 다 수행하면 陽의 역할을 陰에게 넘겨주는 位相과 役割을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2) 三陰의 離와 開闔樞

三陰의 離合은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의 변화 순환 과정이다. 그러므로 三陰의 離合은 三陰經의 원리로 운용되고 三陰經의 常(恒常된 法則)은 合一되어 一陰이 되는 것이다. 三陰의 離合 原理로서 三陰의 開闔樞 原理에 대해 살펴보자. 三陰의 開闔樞는 三陰三陽의 離合 原理가 그대로 적용되어 '闔闢'과 '進退'를 반영하고 있지만 '陰'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고있는데 이것이 '陰陽離合論'에는 다시 공간적인 위치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原文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 中爲陰'의 문장에서 표현되고 있다. 漢代 以前의 '中'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中'은 철학적 개념의 하나로서 맨 처음에는 <<易>>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의 대략적인 발전의 궤적을 살펴보면 <<易>>의 中이 크게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도가의 '中'에 대한 이해이다. 老子는 中氣를 冲氣라 하여 '조화함'을 의미하였고 戰國時期의 黃老道家는 '度'라 하여 中을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실현하는 '時中'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둘째는 儒家이다. 孔子 儒家의 '中'에 대한 이해는 '折中'으로 折中은 <<易傳>>에 직접 계승되어 '中位說'로 나타났다. 中位說은 '中'의 상대적 안정성 속에 편중되어 있다"[40]는 것이다. 또한 三陰사이에 位置關係가 설정되어 있는데 '太陰之後 少陰..... 少陰之前..... 厥陰'이다. 즉 太陰(前)-厥陰(中)-少陰(後)의 위치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前後關係가 공간적으로는 '出入'을 의미하고 시간적으로는 '先後'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三陰의 開闔樞 原理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해석되어져야 하며 三陰의 開闔樞는 첫째, 太陰이 開가 된다. 三陽의 開闔樞 運動이 끝나면 '終則有始'의 원리에 따라 陰의 運動이 開始되는데 그 첫 번째가 陰중에 가장 먼저(前)인 太陰이 活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漢代에는 儒家가 主流의 哲學史潮로 되는데 이들은 陽을 重視하는 體系를 세웠다. 西漢의 今文 經學者 "董仲舒는 '天數는 陽의 오른편이며 陰은 오른편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오른편'이란 尊崇의 의미이다. 天은 당연히 主導的 입장이 되고 陰은 從屬的 입장이 된다. 陽은 만물의 生長을 主로 하며, 陰은 만물의 收穫을 主로 한다"[41]고 하였다. 太陰의 '位'가 '中爲陰'이라는 '中位說'적

36) 민중서림편집국, 전게서, p. 2172.
37) 楊上善 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P. 59.
38) 김용진,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에 나타난 경락학설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9권, 1995), p. 83.
39) 민중서림편집국, 전게서, p. 1042.
40)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58.
41)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논리가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太陰爲開란 太陰이 인체의 중심에서 三陽의 運動의 결과를 收穫(秋收)하는 陰의 역할(陰爲之主)을 開始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陰의 運動을 가장 활발히(太)함으로서 인체의 용적을 키우고 채우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를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둘째, 厥陰은 闔이 된다. 闔이란 '내부를 덮어 가리는 형상'을 가지는데 厥陰은 그 공간적인 '위'치 관계에서 三陰중의 하나로서 中이요 '太陰-厥陰-少陰'의 관계에서도 中이 되므로 두 번이나 덮어 가리는 形象을 취하게 되는데 식물의 胚芽를 보면 果肉으로 덮여 있고 또한 씨의 단단한 껍질로 싸여 있으니 厥陰은 收穫중의 收穫이 되어 이를 結實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시간적인 先後關係로 보아도 太陰의 後가 되어 太陰의 秋收活動이 進行되어 結實을 맺는 단계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三陽과 三陰의 큰 틀에서 보면 陰이 새로운 生命을 保持(藏)함으로서 한 生命의 순환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그 運動이 끝난 것으로 된다. 이것이 '絶陰' '絶陽'의 의미로 된다. 이점에 대해 최근의 <<內經>> 연구가들 중 일부가 '厥陰을 樞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 그들에 의하면 '厥陰이 生命活動의 최종(終)이며 終則有始의 理에 따라 厥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됨으로 厥陰이 樞가 되며 三陰三陽의 분화(離)를 '氣之 各有多少'의 의미로 이해하여 太陰 少陰 厥陰의 順으로 氣의 多少가 定해지므로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점에서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의 開闔樞 原理를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첫째 '陰陽離合論'에서의 氣의 多少는 三陰에서는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三陽에서는 太陽과 陽明이 모두 '陰中之陽'으로 氣의 多少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고 둘째 少陰이 闔이 되면 少陰之上 太陽의 '生'의 의미를 厥陰이 수행하여야 하는데 厥陰은 絶陽으로서 자체 내에 싹을 틔울 수 없다. 결국 生은 太陽의 氣에 의존해야되는데 이점은 먼저 太陽의 氣에 의존(그 힘을 빌어서)하여 싹이 틔우는 것은 '離'(陰陽이 各各의 獨自的이고 個別的인 의미와 쓰임을 지닌다는)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未出地와 出地는 天地 陰陽의 上下 交感의 상징적 표현인데 上下關係의 짝이 '少陰과 太陽'이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厥陰爲闔이란 三陰이 인체의 활동을 거두어 새로운 생명을 胚胎(씨앗)함을 '내부를 덮어 가리는' 闔의 역할과 쓰임의 의미로 보아 이를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으로 된다.

셋째, 少陰은 樞가 된다. 三陰이 '陰爲之主'의 역할을 다하면(陰退) 즉 厥陰으로 結實을 맺으면(藏) 陰이 至極하여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로부터 變化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陰의 內部로부터 출현하므로(陰陽 變化의 動力은 그 內部에 있다) 少陰은 厥陰(絶陰, 絶陽)에 비해 활동성이 强하여 '陰少'하다. 또한 少陰은 '終則有始'의 이치에 따라 三陰의 運動이 그 역할을 다하면 '少陰之上太陽'의 天地 陰陽의 交感에 의해 陰에 基盤한 陽 運動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陰으로부터 陽이 始生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陰陽의 相互轉換의 역할이 少陰에 있음을 門의 구조와 역할에 빗대어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이 '少陰爲樞'이다.

3) 三陰三陽의 合과 開闔樞

원문 '三經者 命曰 一陰 一陽' 에서 '經'이란 그 文字的 의미가 '베틀에 세로 곧게, 단단히 켕긴 날실의 象形'[42]으로 三經者란 太陽 陽明 少陽이 곧게 단단히 얽혀 있고 太陰 厥陰 少陰이 곧게 단단히 얽혀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이 한 묶음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가 一陰 一陽이 된다. 결국 一陰一陽은 三陰三陽의 '合'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三陰三陽은 각기 分離되어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쓰임을 가지지만 그것이 陰이라는 整體性, 陽이라는 整體性을 잃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三陰은 그 근본이 하나의 陰이며 三陽도 그 근본은 하나의 陽이 된다. 둘째, 三陰三陽이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은 三陰과 三陽이 開闔樞 關係를 가지기 때문이다. 三陰의 제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쓰임은 三陰의 開闔樞라는 循環 運動을 통해 전체적으로 陰 運動을 표현하고 三陽의 제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쓰임은 三陽의 開闔樞라는 순환운동을 통해 전체적으로 陽 運動을 표현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三陰三陽의 開闔樞 原理가 인체에 運用되면 經絡循行이 三陽經의 '根과 結'로 서로 이어져 하나의 陽經의 순환체계로 되고 三陰經의 '根과 結'로 서로 이어져 하나의 陰經의 순환체계로 되는 것이다.[43] 넷째, 三陽經과 三陰經은 '不得相失'(서로 잃지 않아야 함)하여야 한다. 三陽經의 開闔樞와 三陰經의 開闔樞는 각각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三陽經(太陽 陽明 少陽)과 三陰經(太陰 厥陰 少陰) 중에 하나라도 그 역할이나 쓰임에 차질이 생기면'(不得相失) 三陽經과 三陰經의 순환의 '常'이 깨어져 하나의 整體性(하나의 陽經의 순환체계와 하나의 陰經의 순환체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王充은 <<論衡>>에서 '무릇 하늘은 위에 덮여있고, 땅은 아래에 깔려 있으니 아래의 氣는 위로 올라가고 위의 氣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 사이에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였다"[44] 즉 一陽은 天陽의 氣運이므로 下降하고 一陰은 地陰의 氣運이므로 上昇한다. 그러므로 天, 日의 象을 가진 三陽經은 天覆하므로 萬物을 넓게 덮고(博而) 그 氣運이 땅으로 下降하여야(勿浮) 萬物을 化育하는 그 '상'(恒常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地, 月의 象을 가진 三陰經은 地載하므로 萬物을 크게 포용하고(博而), 안정되게 실어야(勿沈) 萬物이 자기의 生命(陰陽의 活動)을 유지할 수 있음으로 그 '常'(恒常됨)을 잃지 않아야 만물이 그에 의탁하여 化育될 수 있는 것이다.

4. 三陰三陽의 運用

1) 三陰三陽의 構造形成에 따른 運用

<<易傳>>의 變化 發展觀에 대한 '位' '時' '中'의 철학적 개념에 대해 馮友蘭은 "이른바 '位' '時' '中'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만일 하나의 사물이 형성되어 발전하려면 반드시 공간적인 조건(位)과 시간적인 조건(時)이 맞아야 한다. 또 그 발전

1997), . p. 55.

42) 민중서림편집국, 전게서, p. 1596.

43) 楊上善의 '陰陽合'에는 '根'과 '結'이 六經 모두에 표현되고 있다(楊上善注, 전게서, pp. 58-60).

44)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게서. p. 62

이란 자체의 어떤 한계(中)에 맞아야 한다"[45]고 하였다. '陰陽離合論'의 論理構造는 공간적인 '位'를 가지므로 공간에 대한 漢代以前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帛書 <<老子>>에는 道를 형용할 때 '大'와 '恒'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大恒'의 '大'字는 道가 空間的으로 無限한 연장임을 나타냈고 '恒'字는 道가 時間的으로 무한한 영속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大恒'은 道가 時空的으로 無限하다는 것을 가리킨다"[46]고 하여 道를 空間的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恒'은 莊子의 '太極'과 그 개념이 유사한데 <<莊子>> < 大宗師>에 보면 道의 신비스러움을 "太極보다 위에 있으면서 높지 않고 太極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깊지 않다"[47]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太極은 六極과 대비되는데 그것은 공간의 최고 극한을 가리킨다. 이러한 老, 莊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易傳>>에서는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되는데 그것이 三才이다 "現行本 <繫辭傳>의 三才之道는 帛書本 <繫辭傳>의 三極之道로서 '三極之道는 天, 地, 人 세 가지는 지극한 道를 가리킨다. 그 속에는 天道가 있고 人道가 있고 地道가 있는데 이 三才를 한 묶음으로 하여 두 번 겹쳐놓았기 때문에..... 三才의 道'이다"[48]고하여 太極의 分化로서 三才를 인식하였다. '三才의 묶음을 두 번 겹쳐놓은 것'[49]이 六極이다. 六極에 대해 <<太玄經>>은 "六極(上下四方) 가운데의 사물은 道가 없으면 변화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天氣를 품고 있으며 이를 갖추고 태어난다. .....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땅이 있으며 陰과 陽을 合하여 사람이 태어난다. 이를 三이라 한다. ..... 머리가 둥근 것은 곧 하늘이고 발이 모난 것은 곧 땅이다. 四肢는 곧 四時이고 五臟은 곧 五行이며, 耳目口鼻는 곧 七政과 三光이다."[50]고 하였다. 또한 陰陽의 內外關係와 '位'의 관계는 <彖傳, 否卦>에 비괘 (否卦)의 爻位는 아래가 坤이고 위가 乾이므로 "陰이 안에 있고 陽이 밖에 있다"[51]는 것에서 天上地下의 공간위치가 陰陽과 결부될 때에는 '陰內 陽外'의 '位'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陰陽離合論'에서 空間概念으로 표현된 여러 상징들은 천지만물에 대한 변화 발전을 意味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人體에는 天地, 日月陰陽의 분화상인 太衝과 厥明이 있고 그것이 인체에 적용되어 공간(形)을 나누어 가진다. 三才의 한 묶음이 三極으로서 形(人體)에 응하면 三合이 되고 다른 한 묶음도 三合이 되어 六合을 이룬다. 이 六合이 인체의 上下, 前後, 左右를 이루니 이것이 '少陰之上 太陽' '太陰之前 陽明' '厥陰之表 少陽'을 이루게 된다. 다만 여기서 左右가 表裏로 된 것은 人體는 일정한 形을 지니는데 聖人이 南面하여 섰을 때 인체의 左右는 몸(身)의 左右 側面이 되므로 左右는 方向이 아니라 兩 側面을 표현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三陰三陽이 묶음으로 통일(合)되면 三經이 되어 三陰經과 三陽經이 '陰在內 陽在外'의 공간에 '位置'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형성의 의미로 인해 三陽經은 人體에서 인체 外部의 각 經面을 담당하게 되므로 太陽은 後面(背)이 되고 陽明은 前面(腹)이 되고 少陽은 側面(脇)이 되어 氣運의 흐름이 開闔樞의 원리에 따라 轉輸 疏通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三陰經은 인체 內部의 前 中 後의 時間的 推移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의미가 되어 內部藏器의 역할과 결부되는데 太陰은 前이 되어 外部로부터 流入된 氣를 받아들이는 上部의 藏器(肺 食道 咽喉 等)와 결부되고 厥陰은 中部의 藏器(脾 胃 膵 小腸)와 결부되고 少陰은 下部의 藏器(腎 膀胱 大腸)와 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三陰三陽의 經絡에 대한 運用

'陰陽離合論'의 논술 중에는 "根起於..... 名曰 陰中之....."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장들은 <<靈樞, 根結>>의 내용과 일치한다. 三陰三陽의 의미를 經絡理論과 연계하여 三陰三陽이 人體에 적용되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陰陽離合論'의 經絡에 대한 運用을 살펴보자. 첫째, 根과 結의 의미는 먼저 '根'은 "根, 根本, 實體의 뜻인데..... 글자의 의미에서 보자면 '本'이란 나무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末'이란 나무의 가는 가지나 뿌리가 아닌 것을 가리킨다. ..... <<大學>>에도 本末이 있고..... <<荀子>>에도 本과 末을 함께 거론한 것이 많은데..... 莊子는 '大道는 마치 어두운 듯하여 없는 것 같이 존재하며 자연스럽게 만물을 낳는 모습은 형체가 없지만 신묘한 작용이 있다. 만물은 道의 養育을 받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이를 일컬어 本根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管子>> < 水地>에서는 '땅이란 만물의 本原이고 여러 생명의 씨앗이 蘊蓄된 것이다'고 하였고 ..... 王弼은 老子이후의 道家學派 즉 黃老學 사상을 계승하여 體는 本體 혹은 實體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가장 根本的이며 內在的임을 뜻하는 것이고 用은 體의 外在的 表現과 現象을 일컫는 것이 되었다. 體에는 또한 根據와 技能이라는 의미도 있다'"[52]고 하였다 다음으로 結이란 '終'을 의미한다. <彖傳, 蠱卦>에 '終則有始 天行也'라 했다. 그러므로 結이란 根에서 일어난 三陰三陽의 각각의 경락이 자신의 흐름을 끝내고 다시 시작됨을 의미한다. 결국 根과 結은 三陰과 三陽을 經絡에 결부시켜 氣의 흐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太陽에만 '結'이 언급되어 있고 다른 二陽三陰에는 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結'의 의미가 '終則有始'를 반영하고 있어 '根과 結'이 循環 反復하는 흐름을 가지지만 '根'에 根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二陽三陰과의 연계에 의한 순환 반복을 설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經絡理論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經絡概念의 發生은 鍼灸法의 유래와 관계가 깊이 있는 것이므로 침구치료의 發生으로 인하여 경락개념이 발생하였다. ..... 경락학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點에서 線으로의 發展이고 둘째는 線에서 點으로의 발전이며 셋째는 點과 線의 동시발전이다. ..... <<足臂>>와 <<陰陽>>에는 穴位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각 經脈의 起是 點과 終止 點 및 四肢와 內臟의 相互連繫등을 기재하고 있다"[53]고 하였

4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56-7(재인용).
46)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97.
47) 〈內篇, 大宗師〉 第 六, "在太極之先而 不爲高 在六極之下而 不爲深"(莊子 著, 안동림 譯註, 전게서, p. 190).
48)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77.
49) 〈繫辭傳, 下〉 제10장 "三才而 兩之('삼재이 양지'에 따라 여섯으로 나뉜 것이 천지우주공간이다. 상하 사방으로 합하는 공간을 六合이라 하고 그 비워져 있는 공간을 六虛라 하고 이 六虛의 공간속에서 여섯자리 즉 六位가 나온다)"(김석진, 전게서, pp. 290-2).
50)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게서, pp. 66-8.
51) "內陰而 外陽"(성백효 譯註, 전게서, p. 358).
52)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게서, pp. 119-129.
53) 김용진, 전게서, pp. 53-6.

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靈樞도 東漢 以前 醫學文獻을 匯輯한 것으로..... 成書時代가 素問과 비슷하다. ..... '陰陽離合論'의 足三陽 足三陰에 대하여 '根起于..., (結于.....)'라 하였고 根穴은 五兪穴의 井穴과 같고 結穴은 頭部나 體幹 部의 末端 經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靈樞 根結篇의 15絡脈은 각 經絡의 始終을 論하였는데..... 이중 <<足臂>>는 모두 向心性路線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靈樞, 根結>은..... 向心性路線의 始終을 論한 것이다"[54] 고 하였다. 결국 根結의 終始 槪念은 道家의 終始 槪念과 유사함을 볼 수 있어 根과 結은 本末의 의미가 됨을 알 수 있고 그 經脈의 走行 路線이 向心性의 方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太陽 '結'이 다음 經絡의 始가 되는 방식의 순환 반복하는 양상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한가지 太陽에만 '結'이 언급된 것은 '結'이 命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비록 命門이 '目'을 말하고 '睛明穴'을 일컫는 단어이기는 하나 그 글자의 의미가 生命의 門이고 太陽이 氣가 升하는 生命誕生의 象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大象傳>> <升卦>에 '땅속에서 나무가 생겨 나는 것이 升이다'"[55]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經絡이 모두 點이나 線과 연관된 개념이라면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은 六合을 따라 上下 前後 左右가 되어 面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陰陽離合論'의 經의 개념을 經絡으로 단정지어 해석하는 관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靈樞, 根結>에 十二經絡이 모두 언급된 것에 비해 '陰陽離合論'은 足 六經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三陽經과 三陰經이 三陰三陽이 天에 基盤한 의미의 廣明 太衝과 地에 기반한 의미의 三陰經 三陽經으로서 三陰三陽의 分化(離合)를 설정한 논리의 한계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名曰陰中之.....'의 '陰'은 十二經絡의 '足'의 의미로 이해 될 수 있다.

다섯째, 經絡과 연계된 의미에서의 天에 기반한 太衝과 廣明은 인체에서 구체적인 空間을 가지는데 '中身而上'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身而下'가 '陰'이요 '足'의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中身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天陽, 地陰의 의미가 '머리가 둥근 것'과 '발이 모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결 론

素問 陰陽離合論 陰陽離合의 이론적 운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陰陽離合의 思想的 背景과 論理 構造 및 論理 形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三陰三陽에 대한 해석과 運用方法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素問, 陰陽離合論>에 의한 三陰三陽의 六合構造에 의한 짝의 意味는 다음과 같다. (1) 少陰과 太陽의 上下구조는 天地陰陽이 交感하는 象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만물이 生한다. (2) 太陰과 陽明의 前後구조는 陰陽이 서로 會合하고 變通하는 象으로 이를 통해 생명체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循環運動을 수행함을 표현한다. (3) 厥陰과 少陽의 表裏구조는 陰陽의 운동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陽은 陽進하여 動하고 陰은 陰退하여 靜한 狀態를 표현한다.

둘째, <素問, 陰陽離合論>에 의한 三陰三陽의 役割과 쓰임을 植物에 比喩하여 해석하면 少陰은 地氣의 작용으로 싹을 틔우는 생명체의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太陽은 天氣를 작용시켜 싹을 地上으로 出하게 하는 생명의 始生을 담당하며 陽明은 天氣의 작용으로 만물을 化育 繁盛하게 하여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며 少陽은 天氣의 작용이 至極함에 이르러 가지가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잎이 變하여 陰이 점차로 生하고 太陰은 地氣가 강하게 작용하여 가지가 딱딱해지고 열매맺게 하며 厥陰은 그 열매가 숙성하여 씨앗이 품어져 있는 形象을 갖추게 된다.

셋째, <素問,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離合에 의한 인체 활동을 六合構造로부터 형성된 三陽經과 三陰經의 開闔樞 原理로 표현하고 있다. 三陽經의 開闔樞는 (1) 太陽은 開가 되어 인체에 正(氣)을 주어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三陽經과 三陰經의 순환 변화 운동을 열어 시작함의 의미이다. (2) 陽明은 闔이 되어 四時, 晝夜로 인간을 化育 繁盛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3) 少陽은 樞가 되어 陽이 至極하면 變化가 일어나서 陰에게 지위를 물려주는 轉動을 의미한다. 三陰經의 開闔樞는 (1) 太陰은 開가 되어 陰의 운동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여 인체의 용적을 키우고 채우는 기능과 三陰經의 운동이 太陰으로부터 시작함을 의미한다. (2) 厥陰은 闔이 되어 陰이 그 운동을 다하여 새로운 생명을 胚胎함을 의미한다. (3) 少陰은 樞가 되어 陰이 至極하면 變化가 일어나서 陽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三陽經과 三陰經의 開闔樞 關係는 一陽 一陰의 陰陽運動으로서 循環 反復 運動을 順次的으로 수행하여 一周를 形成한다. 이것이 經絡學說(陰에 基盤하여 陽으로 向하는)과 連繫되고 經脈槪念(浮와 沈)으로 擴張되어 인체의 六經運動의 原理로 적용되고 있다.

넷째, <素問,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 운용에 있어 그 應用 가능한 범주를 보면 (1) 六合(上下, 前後, 兩 側面)의 공간구조가 形體化하면 '六面體의 立體構造'로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經絡學說이 點과 線을 위주로 經絡의 走行에 의미를 뒀다면 '陰陽離合論'은 面을 위주로 하는 氣의 循環體系로 運用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되며, 經絡運用에 있어서도 비록 原文의 例가 地(陰)를 중심으로 足 三陰三陽經에 국한된 운용체계를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여 天(陽)을 중심으로 手 三陰三陽經으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기존의 經絡學說에 대한 다양한 異論을 形成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의한 一周運動의 意味(쓰임)와 順序가 太陽(開)-陽明(闔)-少陽(樞)-太陰(開)-厥陰(闔)-少陰(樞)인 것과 三陰三陽의 役割과 意味가 象徵比喩에서 少陰-太陽-陽明-少陽-太陰-厥陰으로 生長收藏하는 것에 근거하면 人體 三陰三陽의 病理와 治療過程에 대한 <內經>과 <傷寒論> 等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註釋들의 原理를 深度있게 檢討할 수 있을 것으로 推論된다.

54) 최원준, 장준혁, 윤종화, 向心性 路線의 經絡體系에 關한 硏究, (대한침구학회지, 15; 1, 1998), p. 459.

5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91.

참고문헌

1.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2.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2000.
3.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7.
4. 성백효 譯註, 周易傳義,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5. 楊上善 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6. 王氷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7. 王弼저, 임채우 옮김, 老子, 서울; 예문서원, 2000.
8. 莊子 著, 안동림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9.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10. 금경수, 素問. 陰陽離合論에 對한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1. 김용진,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에 나타난 경락학설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9권), 1995.
12.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9; 1), 1995.
13. 옥도훈, 홍원식,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3; 1), 1989.
14. 윤창열, 三陰三陽에 關한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4; 2), 1995.
15. 윤창열,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原에 關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6; 1), 1997.
16.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0; 1), 1996.
17.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2), 1998.
18. 최원준, 장준혁, 윤종화, 向心性 路線의 經絡體系에 關한 硏究, (대한침구학회지, 15; 1), 1998.